

 POSRI 보고서

인도네시아 경제위기설 원인과 진단

박경서 수석연구원, 글로벌경제·정보센터 (kspak@posri.re.kr)

[목 차]

1. 인도네시아 제2 외환 위기설의 배경
2. 외환위기 재현 가능성 진단
3. 향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별첨] 인니 경제전망에 대한 현지전문가들 시각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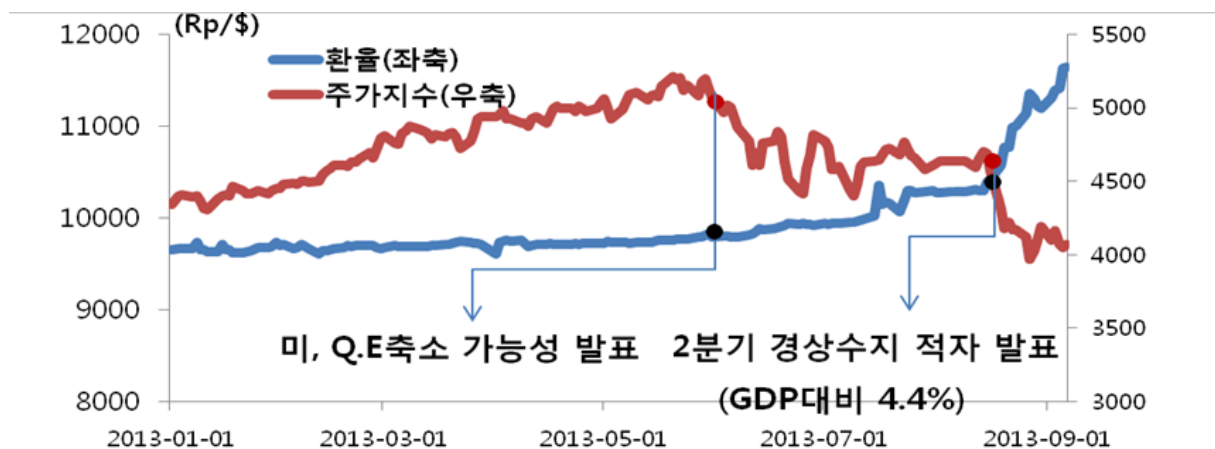
-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신흥국 경제불안을 초래하면서 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제2 외환 위기설 부상
 - 2011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 조짐을 보이던 인도네시아는 최근 경상수지 적자전환, 재정적자 확대, 물가급등 등 경제지표가 더욱 악화
 -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더불어 금융시장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자본 유출에 따른 주가 및 루피아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 지속
- 인도네시아 경제를 위협하는 4대 리스크 진단
 - (경상수지 악화) 2012년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향후에도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환율상승 압박은 지속되지만 선진국 경제회복에 따른 수출증대로 환율 상승률은 둔화될 것임
 - (자본시장의 불안정) 자본시장이 취약하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회수로 주가하락 및 환율급등 등 자본시장 불안이 지속될 전망
 - (외환시장의 불안정) 외환보유고 대비 총외채 및 단기외채 비중이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외채구조의 취약성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가시화될 경우 환율급등으로 외환시장 불안 고조 가능성
 - (물가 급등)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재현되지는 않더라도 최근의 수입물가 상승 등 물가상승 압력과 내년도 선거정국 및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 물가불안은 계속될 전망
- 그러나 환율상승 효과 및 선진국 경제회복에 의한 수출증가와 유가인상에 따른 석유수입 감소로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제2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아질 전망

1. 인도네시아 제2 외환 위기설의 배경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신흥국 경제불안을 초래하면서 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제2의 외환 위기설 부상

- 2011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 조짐을 보이던 인도네시아는 최근 경상수지,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6% 전후의 안정성장을 지속하던 인도네시아 경제가 2011년 하반기 들어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 경고음이 발생
 - 올해 들어서는 경제지표의 부진이 더욱 심화되어 2013년 연간 성장률이 당초 예상 6.2%보다 둔화된 5.9%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가가 급등하고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더불어 금융시장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자본 유출에 따른 주가 및 루피아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 지속
 -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은 외국자본이 50%를 차지하고(거래대금 기준) 외환 대비 총외채 비중과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외채구조의 취약성¹으로 금융시장 불안 요인 발생시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의 큰 혼란으로 이어짐
 -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발표가 있었던 금년 5월 이후 주식시장은 9월 초까지 20% 이상 하락 뒤 혼조세, 환율은 상승세 지속하다 2분기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발표(8/16일)된 이후 급등하여 20일만에 12% 상승
 - 모건 스탠리(7/29)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단행될 경우 금융시장이 취약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

〈인도네시아 최근 환율 및 주가추이〉



자료: 국제금융센터, 경제금융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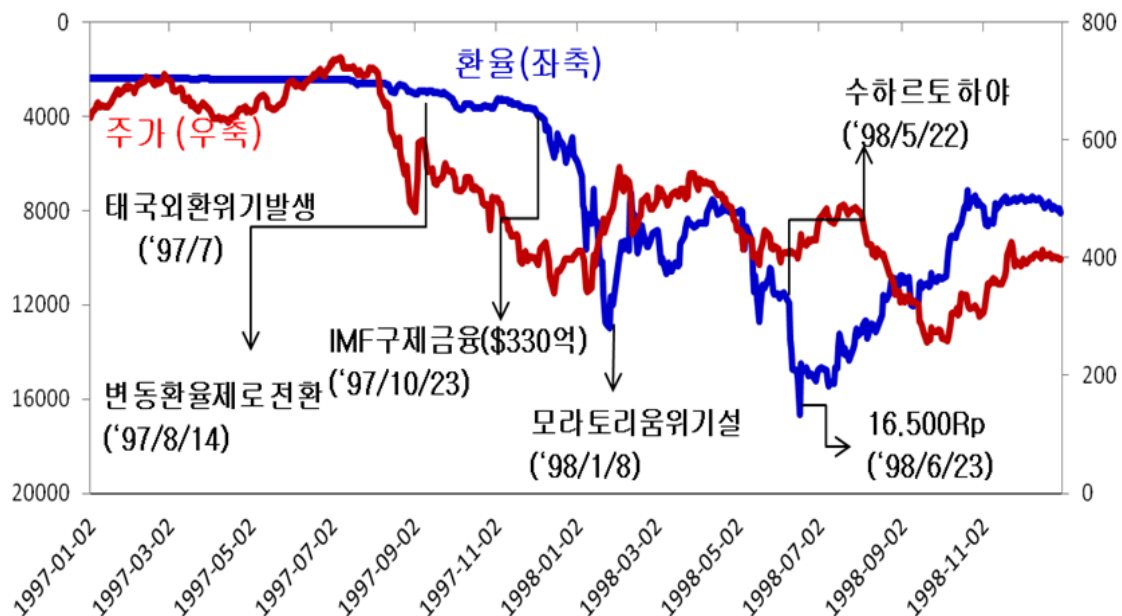
¹ 총외채/외환보유고 250%, 단기외채/외환보유고 비중 40%로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높음

2. 외환위기 재현 가능성 진단 : '97 외환위기 발생원인을 중심으로

□ '97년 인니 외환위기는 ①경상수지 적자누적 ②자본시장 불안정 ③외환시장 불안정 ④높은 인플레이션 등 인니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

- (경상수지 적자누적) 인도네시아는 90년대 들어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취약과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송금증가로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하면서, '93년 21억불이던 적자 폭이 '96년에는 77억불로 3년간 3.5배로 증가
- (자본시장 불안정) '85년~90년대 초반에 자본시장을 개방하여 '95년에 외국자본 비중이 40%에 이르렀으며, '97년 들어 루피아 가치 하락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는 등 외국자본 유출입이 심화
- (외환시장 불안정) 자본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고정환율제에 의해² 루피아 가치가 고평가 되는 등 외환시장 왜곡 발생. 외채구조가 취약한 가운데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면서 환율 큰 폭 상승
- (높은 인플레이션) 외환위기 직전 경기과열로 이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에 육박한 상황에서 1998년에는 경제불안이 정치사회적 소요사태로 까지 번지면서 경제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돼 58%까지 폭등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환율 및 주가 추이〉



자료 : Bank Indonesia(<http://www.bi.go.id>), Statistics

² 경제학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3위일체(Inconsistent Trinity)라 하여 자본자유화, 환율정책, 통화정책은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음(Obstfeld)

□ 인도네시아 경제를 위협하는 4대 리스크 진단

① 경상수지 적자 확대

- 경상수지가 2012년 적자(-2.8%)로 전환된 이후, 2013년에는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4.0%까지 악화돼 IMF 기준 적정 비율인 -2~3% 수준³ 웃돌 것으로 예상
 -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는 경상수지/GDP 비율이 최고 -3.4%(96년)에 머물러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변동환율제 실시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외환시장 혼란 초래
 - 최근에는 경상수지/GDP 비율이 지난해 -2.8%에서 금년 1분기 -2.6%, 2분기 -4.4%로 악화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경상수지/GDP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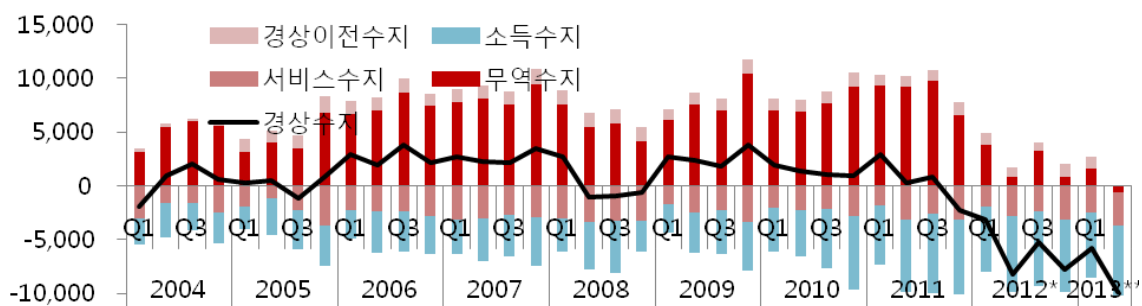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아시아 외환위기	-1.3	-1.6	-3.2	-3.4	-2.3	4.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e)
신흥국 외환위기	0.02	2.0	0.7	0.2	-2.8	-4.0

자료 : Bank Indonesia(<http://www.bi.go.id>), Statistics

- 최근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은 무역수지 흑자폭은 줄어든 반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소득수지는 적자 폭이 늘어난 것이 주원인
 - 주력 수출품이던 농산물 및 광물자원 가격의 하락과 중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으로⁴ 2011년 4분기 이후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하다가 2013년 2분기에 적자로 전환
 - 특히 '11년 하반기 이후 Oil&Gas부문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감소로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 경상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FDI기업 투자수익의 본국 송금에 의한 소득수지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은 FDI기업에게 재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

〈 경상수지 구성요소별 추이(\$백만) 〉



자료 : Bank Indonesia(<http://www.bi.go.id>), Statistics

³ IMF는 GDP대비 적정 경상수지 적/흑자 비율을 $\pm 2 \sim 3\%$ 로 보고 있음

⁴ 중국은 일본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제2의 수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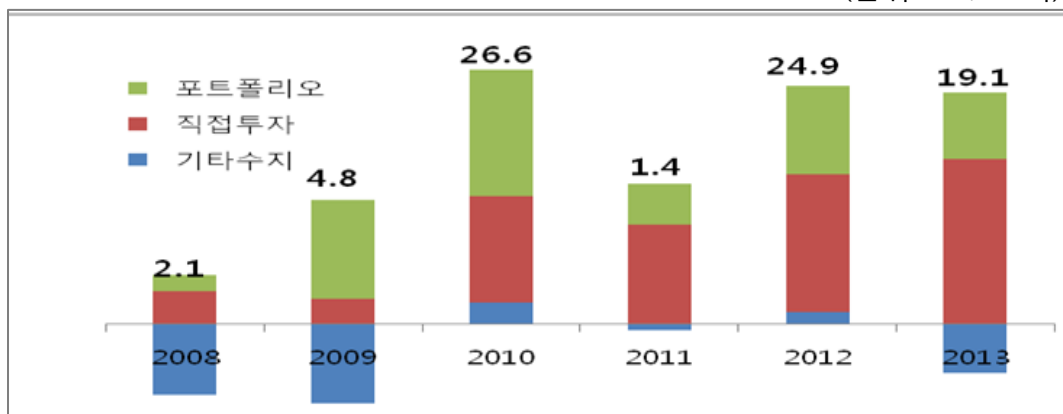
- 정부의 정책효과 및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축소 요인(70)이 경상수지 적자 확대요인(30) 보다 강하여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점차 환율상승 압박도 둔화될 전망
 - 경상수지 적자 축소요인(70): 유가 인상(13.6월)에 의한 석유수요 감소로 석유수입 감소, 일본·미국·유럽 등 선진국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증가,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 경쟁력 향상, FDI기업의 재투자
 - 경상수지 적자 확대요인(30): 중국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감소,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 및 광물자원 가격 하락,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인상

② 자본시장의 불안

- 자본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가운데 외국인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여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성 지속
 -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선진국 유동성 유입으로 '10년 외국인 자본 순유입이 전년비 25.1%나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제금융 시장 불안으로 전년비 60% 급감
 - 특히 금년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발표되면서 자본유출이 늘어나 현금 및 예금으로 구성된 기타수지가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서고 포트폴리오 부문도 25% 감소하는 등 자본수지가 전년비 20% 정도 감소할 전망
- 주식시장 시가 총액이 GDP대비 60%로 한국의 120%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대형주 상위 50개 종목이 시가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외국인 자본 비중도 최근 50%에 육박(거래대금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자본 순유입 추이〉

(단위: US\$ 1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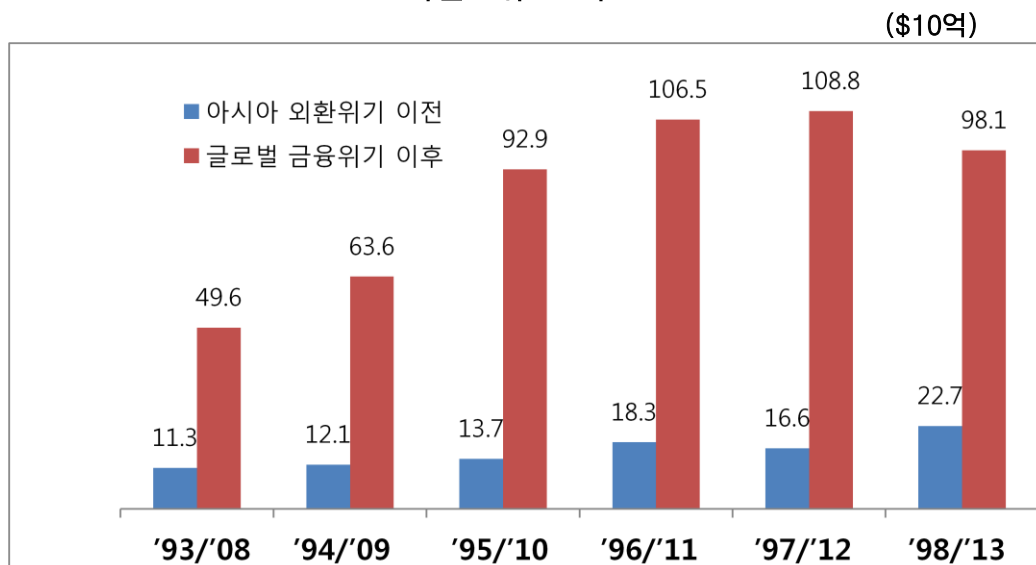
자료 : Bank Indonesia(<http://www.bi.go.id>), Statistics

- 대내외 환경변화에 휘둘리는 자본시장의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아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 외국인 자본의 유출확대로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음

③ 외환시장의 불안

- 총 외환보유고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6~8배 많으나 경상수지 적자확대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발표로 환율이 4년 만에 10,000 루피아/\$를 넘어서는 등 외환시장 불안 재현
 - 총 외환보유고는 금년 초 1천억 달러에서 최근 환율방어에 일부 사용되면서 98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IMF기준 적정 외환보유고인 700달러보다는 높은 수준임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국제유동성 일부가 인니 금융시장에 유입되면서 2011년까지 환율이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경상수지 적자 확대, 산업 생산 둔화 등 경제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점차 환율상승
 - 2013년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이사회가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환율이 급등하여 최근 11,640루피아/\$까지 상승 (9/6일 기준)
- 외채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가운데 외환보유고 대비 총외채 및 단기외채 비중이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높음
 - 총외채/외환보유고 : 인니 247%, 베트남 214%, 필리핀 99%, 말련 72%
 - 단기외채/외환보유고 : 인니 43%, 베트남 37%, 말련 33%, 태국 32%

〈외환보유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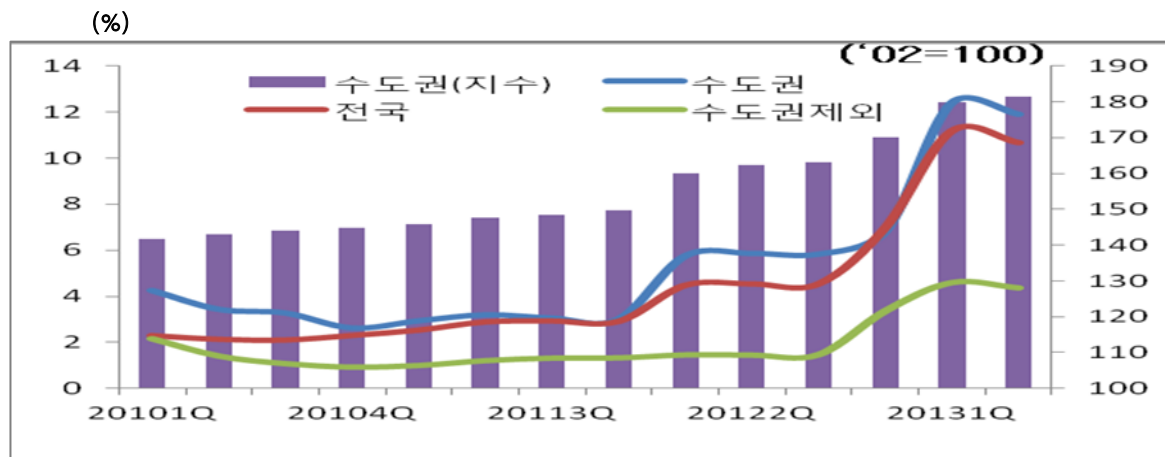
Bank Indonesia(<http://www.bi.go.id>), Statistics

- 인니 정부는 수입대금 5개월 분 이상의 외환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외환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대내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외환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환율급등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은 상존
 - 향후 경상수지 적자 누적과 외국자본 순유입 둔화가 외환보유고 감소 또는 외채증가로 이어지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시행되면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시장 불안이 재현될 수 있음

④ 높은 인플레이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는 연 4%선에서 안정세를 나타냈으나 이후 농산물 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금년들어 유가인상 및 수입물가 상승으로 8%가까이 급등
 - 유류보조금 축소에 의한 유가인상, 환율상승에 의한 수입물가 상승, 이상기후에 의한 농산물 가격 상승, 부동산 경기 과열, 라마단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
-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물가폭등 현상이 재현되지는 않더라도 최근의 여러 가지 물가상승 압력과 내년도 선거정국 및 과거 학습효과에 의한 인플레이 기대심리가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물가불안은 계속될 전망

〈 인니 부동산 가격 추이 〉



자료 : Bank Indonesia(<http://www.bi.go.id>), Statistics, Meta data

3. 향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 인도네시아 경제불안의 지속여부는 경상수지 개선 가능성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정책 효과 여부에 달려 있으나 전반적인 제2 외환위기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
-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경제회복 조짐과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이 수출증가로 이어지고, 석유보조금 축소에 따른 유가인상으로 석유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경제침체로 인한 수출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나 미국, 일본, 유럽지역의 수출비중이 32.3%로 중국(13.6%)보다 높아 선진 3개 지역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아시아 외환위기시에도 인도네시아는 환율상승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경상수지가 '97년 49억 달러 적자에서 '98년 41억 달러 흑자로 전환

- 인도네시아는 2005년에 유가인상 후 석유수입 증가율이 48.8%('05)에서 8.6%('06)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8년 유가가 재차 인상된 후 2009년에는 석유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들었음
- 인니 금융시장은 금년도 3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이 계속되고 있지만 금년 8월 말 발표한 정부의 13개 패키지 경제정책 및 외환안정 5대 정책 등의 효과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
 - 최근 일련의 정부정책이 뒤늦은 대응에다 장기적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은 점차 시장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G20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정책에 대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데 합의한 것도 시장불안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
- 외채구조상 대외지급 능력에 큰 문제가 없고 재정수지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대외신인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총외채/GDP비중이 26.2%에 불과하고 단기외채/외환보유고 비중도 43%에 머물러 단기유동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재정수지의 GDP비중도 -1.4%로 안정된 수준
 - 3대 신용평가기관의 국가 신용도평가가 2011년 이후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치는 인니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투자적격등급 (BBB-)을 유지한다고 발표 (8/22일)
- 해외 경제전문기관과 현지 경제전문가들도 최근의 경제불안이 제2 외환위기로 확산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며 내년도 성장률을 6% 전후로 전망(첨부, 현지 전문가 인터뷰 결과 참조)
 - World Bank, 해외 투자 은행 등은 최근의 인도네시아 경제 불안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제성장률을 하향 수정하여 6.0~6.2% 수준으로 전망
 - Anton Gunawan(Chief Economist, Bank Dnamon) “인도네시아 경제는 다소 위축되어도 위기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 하지만 제조업 부진과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지연되어 성장동력이 약화”
 - Monica Wiharja (Researcher, World Bank Indonesia) “최근의 경제지표 불안이 경제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확대와 투자심리 불안해소가 선행되어야 함”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

	2012	World Bank		10 대 해외투자은행	
		2013	2014	2013	2014
성장률	6.2	5.9	6.2	5.9	6.0
인플레이션	4.3	7.2	6.7	6.5	5.7
경상수지/GDP	-2.7	-2.7	-2.1	-2.6	-2.1
재정수지/GDP	-1.8	-2.4	-1.4	-	-
환율(Rp /\$)	9384	9750	9820	-	-

자료 : World Bank, 2013.7, 투자은행, 2013. 8

□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유사한 6%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실패할 경우 불안이 지속되고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 GDP의 57%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내수가 성장동력을 이끌어 가고 20% 이상의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6% 수준의 성장은 가능할 것임
- 그러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이 계획대로 작동되지 않고 내년도 선거정국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6% 이내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 인도네시아 경제가 장기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 강화 및 인력개발 필요(Rily Yan Ing, ERIA)

[별첨] 인니 경제전망에 대한 현지전문가들 시각(인터뷰 정리)

- Anton Gunawan(Chief Economist, Bank Danamon) 인도네시아 경제는 다소 위축되기는 하여도 위기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며 금년도는 5.8~6.2%, 내년에는 6.2~6.4% 성장 전망
 - 외환 및 자본시장이 취약해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높으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금년에 -2.2~2.4%로 전망돼 터키, 브라질, 인도 등에 비해 높지 않고 외환보유고도 적지 않음
 -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져 루피아 환율 급상승함
 - 당분간 환율 등락세가 반복되겠지만 금년 말 환율은 9,800루피아/\$ 전후로 균형점을 찾아갈 것임
 - 인도네시아 경제를 위협하는 3대 리스크 - ①중국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둔화 ②미국 양적완화의 조기 중단 ③선거정국의 혼란 - 가 있지만 발생 가능성은 낮음
- Monica Wiharja (Researcher, World Bank Indonesia) 최근의 경제지표 불안이 경제위기설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수출부진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전망
 - World Bank는 금년도 인니 경제성장률을 당초 6.2%에서 5.9%로, 내년도는 6.7%에서 6.4%로 하향 조정함
 - 최근 경제지표 불안으로 국내외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주력 수출품인 광물자원 가격 하락과 수출물량 감소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가 당초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고 외국인 투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 S&P가 인도네시아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강등 발표한 데 이어(5/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이 크게 출렁임
 - 석유보조금 축소 시행 지연이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 및 인도네시아 신용등급 강등을 초래했으나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됨으로써 국제수지 및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임
 -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인니 정부가 신속하게 이자율을 인상하고 보유외환을 매각하여 환율을 방어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됨
- Beby Widiyanti (Associate Director, Deloit Indonesia) “경제 불안 조짐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경기위축에서 벗어날 것임”

- 내년도 선거가 평온한 가운데 끝나고 신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한다면 인도네시아 경제는 회복국면에 들어서 6% 이상 성장할 전망
- 인니 자본시장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개방되어 외국자본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에 의한 변동성이 큼
 - 인니인의 30%만이 자본시장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은 400여 개 정도에 불과
-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최근 급격히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급불균형에 의한 일시적 가격상승이며 부동산 거품을 걱정할 단계는 아님
 - 아직 사회문제가 될 만큼 투기적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입과 외국인 진출에 의한 실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무엇보다 주택과 사무실, 호텔 등을 짓기 위한 토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이것이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남

□ 김희년(자카르타 경제일보 발행인) “최근 일부 인도네시아 경제지표의 불안 보고 제2의 외환위기 운운하는 것은 기우임”

- 인도네시아 경제는 내수중심의 경제구조하에서 최저임금의 상승 및 중산층의 부상과 인니인들의 높은 소비성향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장기적으로 보아 6~7% 성장할 잠재력 있음
 - 공급측면에서 인니 기업의 경쟁력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세안 공동체 출범(2015년) 및 FDI기업의 유입으로 경쟁력도 향상될 것임
- 1997년 인도네시아 외환위기는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면서 고평가된 루피아의 급락이 외환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져 발생한 것임
- 외환시장의 구조적 모순으로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율불안은 계속되고 있지만 또 다시 외환위기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임
 - 정부가 때로는 불필요한 외환시장 개입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완전 변동환율제를 실시하여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환율불안이 흡수되고 있음
 - 외환보유고도 외환위기 당시보다 5~6배 많은 약 1,000억 달러 정도여서 정부가 환율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인터뷰 일시 : 2013. 7.22~24)

[참고 자료]

[국내자료]

국제금융센터(박미정), 최근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상황 평가 및 전망, 2013. 8.26

국제금융센터(손영환), 선진국 금융완화 축소의 동남아 주요국 영향 전망, 2013. 7.5

국제금융센터(최호상), 미국 양적완화 축소의 신흥국 경제 영향 및 과제, 2013. 8.13

국제금융센터(김용준, 이상원외), 최근 신흥국 금융불안 현황과 전망, 2013.7.17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속보, 미 양적완화 축소우려에 따라 신흥국 자금이탈우려 심화, 2013. 8.21

국제금융센터(이상원, 김용준), 인도/인도네시아 금융불안에 대한 해외시각, 2013. 8.21

대외정책연구원(김유미),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 동향과 전망, 2013.8.9

대외정책연구원(강대창, 김유미), 최근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 하락의 원인과 시사점, 2013. 4. 9

대외정책연구원(손기태 외),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상황과 향후 전망, 2010. 10. 6

한국경제연구원(최두열),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정과 원인, 1998. 12.15

한국금융연구원(이영환), 최근 양적완화 정책의 역사적 고찰: 대공황기 주요국 평가 절하 사례를 중심으로, 2013. 7

[해외자료]

DBS, Asia-vu 3: are we there yet?. 2013. 9. 5

The World Bank, Indonesia Economic Quarterly, 2013. 7

[인터뷰]

자카르타 경제일보, 발행인, (김희년) 인터뷰 2013. 7. 24

Bank Danamon, Chief Economist(Anton Gunawan) 인터뷰, 2013. 7.22

Deloit Indonesia, Associate Diretor (Beby Widiyanti) 인터뷰, 2013. 7.23.

World Bank Indonesia, Researcher (Monica Wiharja) 인터뷰, 2013. 7.22

[홈페이지 자료]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 <<http://www.kcif.or.kr>>

Bank Indonesia 홈페이지 <<http://www.bi.go.id>>

Global Insight, HIS Global Insight <<http://www.ihs.com>>

Kotra Jakarta 무역관 <<http://www.kotra.or.kr/kbc/Jarkarta>>

[언론자료]

경향신문, [금융위기 인도네시아를 가다] 시리즈, 2013. 8.7 ~ 9.1

인도/인도네시아 금융위기설..가능성은?, 2013. 8.23

ChosunBiz, [위기의 신흥국] 물가압력에 흔들리는 인도네시아, 2013. 7.22

Jakarta Post, Stocks, Rupiah drop into red, 2013. 8.20

Jakarta Post, Why economic volatility is here to stay, 2013.9.9

Jakarta Post, Winners, losers in weak rupiah, 2013.8.26